

주변정세 편승한 '자본' 우월 노골화



I. 서론

80년대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되던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같은 나이의 한반도내의 갈등도 변화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례를 대상으로 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급속하게 진행되는 대변혁으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의 주요 국가정책 목표인 통일정책도 새롭게 평화체제의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응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국민들의 적대적인 가치도 화해적 민족 공동체 의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의 경제협력관계 구축과 지역내 평화적인 대외관계 형성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희망에 찬 미래를 건설하려는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변화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반도 주변의 상황을 보면 쉽게 예견하기가 어렵다. 육상 병력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극동 함대에 최신예 항공모함이 배치될 예정이고 첨단 장비의 함정들이 보강되고 있으며, 미국의 제7함대가 사실상의 전력을 증가시키고, 일본은 나토내로 정치대국화, 군사대국화의 길을 가면서 방위비가 GNP 1%라는 자신의 자재력을 스스로 동원시켜 버렸다.

이러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한반도 주변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남북관계의 변화가 국내외적 정세의 변화와 관련하여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은 당사자인 우리에게는 의미있는 일이며,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는 이즈음에 보다 깊은 일일 수 있을 것이다.

II.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변화

소련에서의 쿠데타 발생이나 레닌주의의 철거, 중국의 체제수호 결의, 김일성의 공식·비공식 중국 방문이라는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변화, '엔'화를 기반으로 정치대국화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일본,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로 군사전진과 경제전진, 유엔 등을 무대로 설정하고 있는 미

국, 통합의 길로 접어들어 유럽, 독일은 이제 세계국가로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 자금의 세계 주요 모습이다.

이러한 세계의 변화는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북한이 유엔가입을 계기로 일본이나 미국과의 수교협상을 원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북한 주민들 입으로 남한의 흡수통일을 반대한다는 공개입장이 나타난 정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남북협상과정에서 북한이 많은 개방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남한은 북방정책과 동북아 정책, 대유엔외교 등으로 현재의 변화에 탄력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의 대응능력 즉 내외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체제의 능력이 변화를 조정하게 된다.

일례로 남북한간의 GNP 격차는 6:1이고 군사비는 2:1이지만, GNP대비 군사비는 각각 6%대 30%까지도 파악됨으로써 북한은 상당한 중압감을 받고 있으며, 특히 최근경제가 마이너스성장할 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성기라는 93년까지의 경제발전계획이 사실상 실패를 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문제에 의한 체제내적인 불안과 불안을 북한은 정책 결정자들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위계적이고 안정된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일부의 외신처럼 북한의 정부내에 기술관료들이나 강경군부 세력, 하부의 관료나 당 세력에 대한 시민의 반발로 인한 소요 등과 같은 체제의 동요를 가져올 수 있는 갈등의 소지는 여러 곳에 있다.

이에 북한이 수세의 위치에서 공세적인 대외 적응정책으로 선회한 그 결정적인 모습이 바로 남북한의 유엔가입이다.

즉 남한은 대북정책의 참구다 변화, 대외위상의 강화 및 국내적 요구에 상관없이 국제적 차원에서 대북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동북아 시대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국제적 간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남한은 유엔가입을 통하여 적절한 통일의 완급과 비용을, 그리고 국제적 간섭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군축의 문제도 남북한의 군축

기획시리즈(4) — 한국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변화

협상과 유엔군축회의를 상호연결시키는 수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핵사찰의 문제와 과도한 병력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남한의 미군전술핵이나 미군배치라는 국제적 공인사항을 제기하더라도 국제무대에서 보상이나 명분에서 상당한 수세적 입장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남북한의 최고정책결정자들 사이의 사고체계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강경론과 신중론이라는 이분법적인 분류가 황폐하고 과거의 전쟁경험

이나 동북아 질서의 형성, 남북한 통일에 대한 대외적인 영향은 그 방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고 불안정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한 반도의 주변정세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남한은 북방정책과 동북아 정책, 그리고 북한은 남방정책과 관련하여 주변지역국가들과 통일이나 지역협력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체제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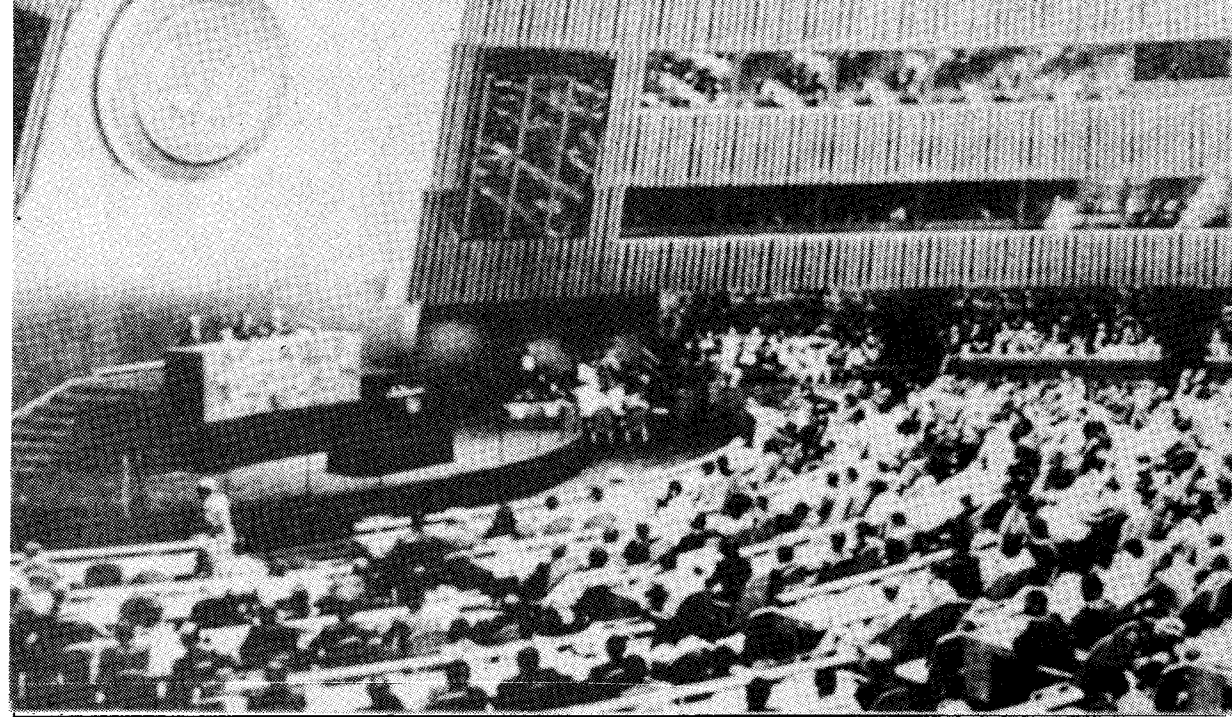
북방정책은 일단 성과있는 정책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현실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지만, 앞으

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이냐.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외교관계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 반대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해서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국제분업식의 자본, 기술, 노동력, 원료 등은 국제협력을 강화시키게 되고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구상에도 유용한 모델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긍정적 전망은 또 다른 부정적 요인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먼저 미국의 역할분담론은 아시아에서의 패권과 중국·소련의 역할에 대한 국제 정치군사력적인 공백을 일본에게 점차 넘겨주는 구상이 급진전되면서, 주변국들은 자체적인 국가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중국 및 소련과의 연대나 우호협력 조약의 체결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러



UN 동아시아 회의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홍보차원·흡수통합논리 탈피한 민족적 통일 정책 요구돼

경험 통한 외교개선, 경제 활성화 의도 맞물려 남·북 교류 확대

과 불신의 장벽이라는 넘기 어려운 장애요인들이 있지만, 시간의 경과와 사회적인 요구가 공유된 인식체계를 형성함에 따라, 오히려 점차 모든 인사들이 신중론이라는 측면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개인적이고 유일한 권위에서 출발한다고 볼때, 군사 및 당 부문에서 원로형의 강경론자들을 제외하고 김일성을 비롯한 김정일 세력권 즉 젊은 엘리트들로 기술관료나 전문가 그룹, 외교활동 경험자 등으로 구성될 수 있는 그들의 정책 노선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대외적인 변화나 국내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과정에서의 즉 자수정제 실현을 위한 개방이 혼선을 빚기도 한

게 되는 대내적인 집단정책결정을 요구한 화성이나 재야의 통일열기는 결국 계속된 요구와 국제환경의 변화가 일치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의 대북한, 사회주의권에 대한 인식의 틀을 화해적 동포애로 풀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통일정책을 어떠한 국가 정책보다 전면에 내세우고 그 효과를 정치적 효과로 연계시키려는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III. 남북한 관계의 변화 예상

위에서 지적한 변화의 요인은 앞으로 계속 한반도 주변의 역동성을 가속화 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질서의 형성

로 중국과의 관계개선이냐. 북한과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외교관계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 반대로 사회주의 국가들은 한국, 미국, 일본 등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역 및 투자 확대를 통해서 자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국제분업식의 자본, 기술, 노동력, 원료 등은 국제협력을 강화시키게 되고 남북한의 통일을 위한 구상에도 유용한 모델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긍정적 전망은 또 다른 부정적 요인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된다. 먼저 미국의 역할분담론은 아시아에서의 패권과 중국·소련의 역할에 대한 국제 정치군사력적인 공백을 일본에게 점차 넘겨주는 구상이 급진전되면서, 주변국들은 자체적인 국가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중국 및 소련과의 연대나 우호협력 조약의 체결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러

한 구상은 결국 황해경제권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경제로 인해 갈등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동북아 질서의 형성이 협력체제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때 한반도의 관계는 영토적인 통일의 차이를 떠나 평화체제 구축이나 긴장완화 뿐 아니라 통일을 위한 교류협력과 신뢰형성, 그리고 경제적 통일 여건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북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체제의 변화는 정치적인 문제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변화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무마나시, 폴란드식, 중국식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현

- 클릭해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1. 소련사태후 국제질서의 변화(上)
—미국·유럽을 중심으로
 2. 소련 사태후 국제 질서의 변화(下)
—중국·북한을 중심으로
 3. 국제질서 변화와 제3세계
 4. 한국의 대외정책과 남·북관계변화
 5. 한국의 무역 및 국내외 경제 전망
 6. 국제정세변화에 따른 민족민주운동
세력의 대응

체제를 완강히 고수하는 모델도 포함되었지만, 일단 북한은 변화를 선택했음을 앞서서 지적했다. 사실 북한은 80년대 중반의 '합영법'을 근간으로 대외투자유치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놀라운 대외적응력을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의 오락문화가 벌써 80년대 중반 이후 일부에서 국영으로 허용된 이후에 최근에는 해외동포들의 관광 수입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이나 자력강화를 위한 자본과 기술의 문제는 오히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심각해 지는 실정이다. 물론 북한은 관료나 당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가능한 독점적 권위체제가 있다.

그리고 자본과 기술을 제외한 원자재와 노동의육이 판매해 있다는 것은 외부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험자이나 지원을 통해 자본을 동원할 수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개방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남한의 입장에서도 북한과 현실적인 관계를 어떻게 함으로써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최근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비해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국방, 문화, 경제, 국토개발 등의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측면에서 계속 접근함으로써 단순한 흡수통일의 부작용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비록 합의통일에 기초한 합류통

적 협력이나 경제교류가 상당히 중요한 남북한 혹은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원조나 경제협력의 파트너가 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대내적인 협력관계의 강화는 바로 대외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미국과 일본의 수교 문제와도 깊게 연결되어 있다. 사실 한국이 유엔타인원칙을 포기한지 벌써 20여년이 되어가지만, 승인을 포함한 우방국가의 외교적인 조치는 분단국가의 관계정상화와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또한 이를 벗어날 때에는 비우호적인 행동으로 간주한다는 선언칙을 견지하면서 북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본의 등거리 외교는 일본의 대중국 외교와 마찬가지로 주변 국가들의 이해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아무튼 남한의 통일정책은 미국에 의해 안정적 정치권력을 유지하려는 기대심리가 있으며,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를 일정한 선에서 유지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하는 합의된 흡수 통일, 혹은 합류통일이라는 방식을 거쳐 통일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유발하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IV. 결론

지금까지 남북한 양측의 변화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동유럽이 서유럽과 함께 하나의 유럽으로 형성되면서 자유와 물질과는 다른 이념의 물결을 보았고, 빈부의 격차라는 또 다른 장벽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조차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주어진 질서에 순응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의 이익을 지켜나갈 수 없는 것이며, 국제질서의 형성, 유지에 선진적으로 참가하여 불리한 질서형성을 예방하고 새로운 질서를 유리하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 최근 북한의 변화와 주변국가와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의 21세기 정책 대응은 아직도 남한 단독의,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임기응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한 건주의나 홍보논리의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의 모순을 극복하는 인간의 지혜가 바로 현실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이제 미래를 볼 줄 아는 혜안을 가지고 국민의 말을 잘 듣고 실행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기다려 지는 때이다.

임 춘 건

(대학원 박사과정·정치학)

“암(癌)정복을 꿈꾸는 신약개발연구원”

암정복의 일보를 내딛으며...

여보세요, 생명과학 연구개발실이지요? 이번엔 개발된 제3세대 항암제는 언제쯤 시판이 가능할까요?
미국에서 개발된 기존의 항암제보다 우수한 제3세대 항암제를 우리 힘으로 개발, 암정복의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소식이 전해진후 우리 연구실에서 전화기가 가장 바빠졌을만큼 세계적 연구성과에 대한 관심은 컸다.
세계 35개국에 특허출원, 빠른 시간내에 세계시장에 내놓게될 항암제 개발의 뒤에는 팀원 모두의 희생적인 노력이 있었다. 연구결과와 진척이 없을때는 느가면 좌절감... 그때마다, “신약개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던 선배들의 독려와 함께 신입사원 시절의 해외전지훈련의 기억은 뜻내기 연구원인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제 나의 목표는 AIDS정복

2년 전, 햇방아리 신입사원으로 참가했던 일본에서의 신입사원 해외전지훈련.



● '89신입사원 해외전지훈련 대진 과정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일본의약제를 돌아보며 이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세계적 신약을 만들고자 말했던 뜻내기 의약개발연구원의 다짐들... 일본 구석구석을 몸으로 누르며 체득한 패기의 참뜻... 이 모든 체험들은 세계적인 큰일을 해내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변화하는세계의 모습을 일깨울 수 있었던 소중한 체험이 되었다. 이제 항암제의 상품화에 이어 20세기의 흑사병 AIDS를 정복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보람이다. AIDS정복의 소식을 전하며 “암이나 AIDS가 불치병이란 말도 이제 옛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나의 하루는 힘찬 전진을 계속할 것이다.

선정 인더스트리
생명과학연구소 항암제팀
김 강 혁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직접 배우게 하는 일 - 선정이 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국내 최초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세계 곳곳에서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해외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정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배울 수 있는 더욱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실험동무에 합심된 제3세대 항암제를 가지고 독성 및 약효실험을 하는 모습.

SUNKYONG
鮮京그룹

(주) 선정 선정인더스트리 (주) SKC 세라톤 위커일 선정건설 (주) 유광 유광해운 (주) 유광가스 유광아코화학 (주) 유광상사